

# 깊어가는 가을, 광주시향 클래식 선율에 빠지다

‘GSO 오티움 콘서트IV-희극VS비극’  
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GSO 실내악시리즈’  
13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바이올린 석수연



비올라 조수영



첼로 석민정



피아노 김성재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광주시향교향악단(광주시향-GSO)이 두 개의 공연을 선사한다.

먼저 ‘GSO 오티움 콘서트IV-희극VS비극’을 오는 6일(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총 5회 기획된 공연 중 이번이 4회차. 제목에서 드러나듯 공연은 희극과 비극을 각각 모티브 삼는 클래식 음악들을 교차로 연주한다는 계획이다.

모차르트 작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 막을 연다. 결혼식을 앞둔 알마비바 백작의 시종 피가르가 백작부인의 허녀 수잔나와 백작을 골탕 먹이고 결혼하는 내용을 담은 희극적 작품이다. 이어 라벨의 ‘치간느: 합주 광시곡’은 애절한 분위기가 감도는 비극적 작품인데 광시곡(랩소디)의 화려함과 관능미가 자유로운 형식과 조화를 이룬다.

관현악곡 ‘슬픈 왈츠’는 북극 음악가 시벨리우스가 작곡했다. 작품명부터 비극성을 짐작케 하는데 병든 여인이 환상 속 손님과 왈츠를 추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희비극(喜悲劇)적 작품들도 울려 퍼진다. 사라사테 ‘지코이네르바이젠’은 전반부를 침울하게 전개하다가 후반부에서 밝은 악상을 보여준다. 브람스 작 ‘비극적 서곡’도 제목과 주제에서 비극을 위시하지만, 절망을 극복하는 의지도 작품 전

편에 녹아 있다.

지휘는 장한결이 맡는다. 서울대 음대 작곡과,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했으며 2022년부터 인천시향 부지휘자로 취임해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은 서울예고, 한예중, 독일 뮌헨국립음대 독주자 최고과정을 졸업했다. 솔리스트로서 두각을 보여며 헝가리 체임버 필하모닉, 베를린 캄페 필하모닉 등 교향악단과 협연해 왔다.

한편 광주시향이 올 4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GSO 실내악시리즈’는 챔버음악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무대는 총 5회 기획된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로 오는 13일(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19세기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 슈만의 작품을 현악, 피아노 앙상블로 구성했다. 올해 4월부터 광주시향이 기획하고 선보여 온 ‘실내악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가 먼저 울려 퍼진다. 제목에 ‘제2번’이라는 연번이 붙은 작품이지만 제1번 작품보다 먼저 작곡돼, 사실상 멘델스존의

첫 현악사중주 작품으로 꼽힌다. 바이올린에 석수연, 박혜진이, 비올라에 조수영이 연주한다. 여기에 석민정의 첼로를 더해 현악 콰르텟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내림 E조조’도 감상할 수 있다. 1842년 만들어져 피아노와 현악사중주가 어우러지는 ‘피아노 오중주’ 형식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당시까지 현악이 주가 됐던 실내악에 피아노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식미학을 창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피아니스트 김성재가 광주시향 현악사중주와 협연할 예정이다. 김성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 예비학교를 거쳐 동대학에서 학·석사학위를 받고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속했다. 계원예중과 경남예고 등에 출강 중이다.

제1바이올린(차석)을 연주하는 석수연은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 예술대학원을 나왔다. 박혜진 바이올리니스트는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멸종위기동물 색 채우고 VR레이싱도 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린이 대상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인기



관람객 체험 전시인 ‘멸종위기 동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멸종위기동물’ 스티커 컬러링, ‘프렌즈 레이싱 VR’을 비롯해 ‘더 리틀 큐레이터’ 등 ...

광주디자인비엔날레(11월 7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들이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어린이 학생을 위한 체험·교육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DNA디자인스튜디오의 ‘멸종위기 동물’은 고래, 코뿔소, 얼룩말, 래서판다 등 멸종 위기 동물을 소재로 번화를 찾아 스티커를 붙이며 색을 채워나가는 콘텐츠다.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매타버스 공간에서도 체험이 가능해 접근이 쉽다.

4DX 게임인 ㈜브론의 ‘프렌즈 레이싱VR’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VR 레이싱 게임이다. 차량 움직임은 물론 레이싱 노면의 상태에 따라 진동을 느낄 수 있다. 관람객은 6가지 테마(설산, 동굴, 라스베가스, 발렌타인데이, 댄스클럽, 놀이공원) 속

에서 게임을 즐기며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인 참여형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meet&play’(미트 앤 플레이)는 가족이 함께 그림도 그리고 전시물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는 예술 전문 강사와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고,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되며 그동안 300여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인 ‘모 모 모’는 ‘나의 감정’, ‘자연’ 등과 관련한 작품을 만들어보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한편 송진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4개 테마)를 비롯해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며 “전시가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체험·교육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교향악단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소파 방정환 선생 삶 ‘불 켜는 아이’

ACC재단, 창작 음악무용극 ... 13~14일 예술극장 극장2

동화책을 읽는 독자, 인형극을 보는 관객, 잡지의 구독자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공연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삶을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삶을 다룬 창작 음악무용극 ‘불 켜는 아이’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13일(오전 11시)과 14일(오전 11시·오후 3시) ACC 예술극장 극장2.

이번 작품은 지난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노원문화재단 등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공동 제작했다. 공연은 서울 노원문화재단과의 기관 교류로

진행하며,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일대기에 초점을 맞춘 창작 음악무용극이다. 언급한 대로 이번 작품은 관객들은 동화책을 읽는 독자였다가, 인형극을 보는 관객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잡지의 구독자가 되는 등 다양한 경험과 함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동화를 음악과 무용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현장에서 라이브 연주로 음악적 감동을 주고, 배우들의 움직임과 동작으로 메시지를 표현해 극적 몰입감을 높여줄 예정”이라며 “소파 방정환 선생의 삶을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불 켜는 아이’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이호국 작 ‘나들이’

## 영상예술을 통한 위기청소년 치료·교육

‘한국청소년영화제’ 7일 개막...광주·익산 동시 개최

미래 영상인재를 조기발굴하고 청소년 문제에 ‘영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영화제가 열린다.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사)매직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이강래)은 제25회 ‘한국청소년영화제(KYFF)’를 광주·익산에서 동시 개최한다. 오는 7일(오후 3시) 광주 충장22축제 야외광장에서 개막.

올해 영화제 주제는 ‘장이 없는 방에도 달이 뜨는 축복’이다. 고난(장 없는 방) 속에도 희망(달)이 있다는 비유적 슬로건은 이번 영화제의 목적 중 하나가 ‘영상예술을 매개로 한 위기청소년의 치료·교육’임을 드러낸다.

1999년 시작된 한국청소년영화제는 국내 최장수 청소년 영화제다. 그동안 위기 청소년들이 창작 영화에 에너지를 발산하는 발로가 되어왔으며 영상장작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역할해 왔다. 매해 200여 편 작품이 출품돼 그 열기도 뜨거운 편.

개막식 당일에는 기념행사, 대상 수상작 상영이 예정돼 있다. 이어 8~9일 이틀에 걸쳐 수상작을 색선택으로 상영할 예정. 행사 일환으로 8일(오후 5시)에는 익산 영등공원에서 기념행사 ‘축복&축제’도 펼쳐진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개봉하고 다양한 체험행사,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선 진출작은 총 24편으로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 본선 진출작에 신은장 작 ‘모이’, 박윤 작 ‘판매금지’, 양운서 작 ‘수상한교실2-이새나 실종사건’ 등이 있다. 심사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영화감독 봉만대가 맡았으며 안영진, 조은성, 백재호 감독 등이 심사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예쁜 상처’ 스틸컷

한편 전야제 행사는 5일(오후 6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다. 광주, 익산 등지에서 촬영한 계몽(교육)영화 ‘예쁜상처’ 시사회, 대표작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알려진 장철수 감독과의 GV 등이 마련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제로베이스 IN 전남’ 경매 시작된다

전남문화재단-서울옥션, 10일까지 작가 10명 작품

전남문화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국내 화단이나 미술시장에 알려질 기회가 적은 지역작가들의 중앙 진출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아트페어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른 서양화가 고차분은 지난 2020년 전남문화재단이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공동기획한 프로젝트 ‘제로베이스 in 전남’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작가로 떠올랐다.

전라남도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올해도 제로베이스 경매를 추진한다. 올해 경매는 이호국, 홍은표, 고마음, 허정록, 이설재, 정운영, 김계진 7명의 작가를 비롯해 2020년~2021년 경매에 참여했던 고차분, 함인수, 정선영 등 총 10명의 작가가 함께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로베이스 출품작은 4일부터 10일까지(전시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전시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옥션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경매가 시작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대표는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기존 경매 기록이 없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가격 결정을 구매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경매로, 지난 3년간 출품된 작품 206점이 100% 낙찰되는 성과를 보였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는 물론 도약하고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